

##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시사점

하 병 기 · 전 수 봉

(선임연구위원 · 산업경쟁력실) (연구위원 · 산업경쟁력실)  
hbk@kiet.re.kr sbchun@kiet.re.kr

### 〈요 약〉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국제적인 기관의 평가대로 세계 20위권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역 성취, 산업 및 기업의 세계적인 위치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투자, 고학력화, 연구개발비, 투자, 정부재정수지 등 경쟁력의 양적인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질적인 조건에서는 미흡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다. 미흡한 점은 교육이나 노동 등과 같이 인적자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나 경영의 투명성 및 규제 등과 같이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의 확충과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 경쟁력의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구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 및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계속 제자리를 맴돌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기지개를 켜면서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 소식이 들려오는 반면 우리 경제의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요인이라 하겠다. 수출과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성장의 두 요소인 소비와 투자가 모두 부진하여 경제 전반의 회복이 더딘 상태이다.

사실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신인도나 국가경쟁력 순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국가가 부도상태에 처한 쓰라린 경험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체 평가가 절실해진 것이다.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 그리고 기업경쟁력 등 경쟁력이라는 단어는 언론 등에서 거의 매일 접하지만 막상 경쟁력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선뜻 답하는 이가 드물다. 기업 경쟁력은 시장에서 상대 기업과 경쟁하여 살아남거나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가 있지만 국가나 산업의 경우에는 간단하지가 않다. 국가 혹은 국제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리이러한 일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경쟁력의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지수를 둘러싸고는 정론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국민의 소득 및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막연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 결과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합의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유효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이나 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간 경쟁력 순위가 자주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가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국민의 소득 및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일국의 평균적인 기업이 여타국의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기업경쟁력에서 우선 출발한다. 다만, 기업의 집합체인 산업 및 국가로부터 파생하는 경쟁력 요소는 인프라 요소나 환경 요소로 취급하여 분석할 수 있지만, 세부 경쟁요소의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미국이 세계 최대 부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우리 경제와 경쟁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강소국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 1. 국민 소득

한 국가가 국민의 소득 및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은 1인당 GDP 등과 같이 현실화된 지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간단하다. 사전적인 의미의 국가경쟁력을 현실화된 지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은 국가의 잠재력을 간과하는 한계는 있다. 국가경쟁력이 결국은 소득 지표로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달러화 표시 1인당 GDP가 해외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해당 국민의 복지를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구매력이 간과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국제비교에는 유용한 측도이다.

1인당 GDP 수준을 살펴보면, 비교

국가 중 미국이 2002년 중 3만 6,000달러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일본이 3만 1,000달러이며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은 1만 달러 수준으로 비교대상 국가 중 955달러인 중국의 위에 위치한다. 1인당 GDP로 볼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뒤처지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아직 상당한 정도로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쟁력의 5년간 변화 추이를 가늠하기 위해 1인당 GDP의 1997~2002년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았다. 중국과 영국이 이 기간 동안 각각 5.62% 상승하여 이들 국가의 경쟁력이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가장 빠르게 개선되었다. 다음으로 미국이 연평균 3.65% 증가하였고, 네덜란드와 핀란드도 1%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싱가포르가 가장 큰 4.22% 감소하였고 이어서 일본과 우리나라도 감소하여 이들 나라 모두 1997년의 소득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1인당 GDP의 증가율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과 싱가포르 모두 1997년 이후 2002년 기간 동안 국가경쟁력이 쇠락하거나 혹은 정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경험한 것을 고려하여 1998년 이후와 1999년 이후의 평균 증가율을 보면 각각 9.9%와 4.8% 증가하였다.

이는 외환위기로 달러화 표시 소득이 급감하였지만 그 이후 급속하게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인당 GDP가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불과하였다는 점에서는 경쟁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가 힘들다. 외환위기가 국가의 경쟁력 붕괴라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1인당 소득이 증가한 국가는 주로 2~3%대의 견실한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으로 1인당 소득이 감소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덜란드 및 핀란드도 환율 상승으로 1인당 GDP 성장률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국가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사실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환율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책적인 고려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일본 및 싱가포르는 부진한 경제성장과 물가 하락으로 1인당 GDP가 하락한 경우이다. 일본은 최근 들어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경제적인 활력을 상실한 시기였다. 경제활력 부진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증거라 하겠다.

## 2. 대외 경쟁력

수출의 성취도를 보면 한국은 1998~2002년 기간 중 물량 기준으로

〈표 1〉 1인당 GDP 비교

	2002년 1인당 GDP(달러)	1인당 GDP 증가율(%)	실질 GDP 성장률(%)	디플레이터 상승률(%)	인구증가율 (%)
한 국	10,050	-0.68	4.40	1.19	0.70
미 국	36,012	3.65	2.99	1.73	1.07
일 본	31,314	-1.74	-1.74	-1.32	0.21
영 국	26,533	5.62	2.69	2.41	0.33
네덜란드	26,046	1.58	2.64	3.20	0.54
핀란드	25,299	1.22	3.65	2.03	0.22
싱가포르	20,790	-4.22	2.87	-0.93	2.49
중 국	955	5.62	8.26 <sup>1)</sup>	0.54 <sup>1)</sup>	0.83

자료 : IMF, IFS.

주 : 1) 1995~2000년 기간 평균임.

는 수출이 연평균 12.9%나 증가하였으나, 교역조건 지수가 연평균 4.9%나 악화되어 달러화 금액으로는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 물량 기준으로는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성취도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나, 가격 인하에 의한 성취였다는 점에서는 질적 경쟁력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기간 중 교역조건 악화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네덜란드, 핀란드, 싱가포르의 모든 비교대상 국가가 경험한 현상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달러화표시 수출 금액이 연평균 0.3% 감소하였으나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수출 물량이 1.4% 증가하였다.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교역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은 우리나라 상품의 부가가치가 이들 국가에 비

해 여전히 열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대외경쟁력의 또 다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국제수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비교대상국들이 대부분 대외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들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거래에서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미국과 영국은 무역수지가 적자인 반면 서비스수지는 흑자를 보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 3. 주요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

최근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세계시

〈표 2〉 수출 관련 지표의 변화

	수출증가율 (%)	수출량 증가율 (%)	교역조건 변화	수출/GDP (%)	환율변화율 (%)
한 국	3.60	12.94	-4.91	36.75	5.63
미 국	0.15	1.13	0.06	7.44	-
일 본	-0.26	1.43	1.29	9.86	0.72
영 국	-0.33	3.29	0.07	18.66	1.75
네덜란드	2.61	4.47	-1.02	53.44	4.22
핀란드	2.48	-	-2.56	34.63	4.22
싱가포르	0.01	-0.03	-2.03	142.57	3.82
중 국	12.24	-	-	22.10	-0.03

- 주: 1) 증가율은 1998~2002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 2) 수출은 통관기준 달러화 금액 통계임. 미국은 FAS 기준, 그 이외에는 FOB 기준임.
- 3) 수출/GDP는 1998~2002년 5개년 평균임.
- 4) 수출증가율은 달러표시 수출 증가율임.
- 5) 환율변화율은 대달러화 환율의 변화율임.
- 6) 네덜란드 및 핀란드는 2000~2002년 유로화의 평균 변화율임.
- 7) 교역조건은 수출가격/수입가격임.

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에서와 같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력 수출산업은 시장점유율 순위가 최근 들어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점유율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1995년 10.4%의 시장점유율로 세계 제3위에서 2000년 이후에는 4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001년 5.7%까지 낮아졌다가 2002년에는 7.0%로 회복하였다. 하지만, DRAM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43.8%로 높아지면서 세계 제1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부침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 약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선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2000년 1위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2위로 순위가 낮아졌고 일본이 다시 세계 제일의 조선국으로 부상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5.4%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으로 순위는 2001년에 6위로 하락한 상태이다.

세계시장 점유율 순위로 보면 여전히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DRAM 이외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등에서 세계점유율 1위를

〈표 3〉 주요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및 순위

		반도체		자동차	조 선	철 강	석유화학	섬 유		
		DRAM 생산량	반도체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선박 수주량	조강 생산량	에틸렌 생산능력	화섬 생산량	섬유 수출실적	
1995	순 위	2위	3위	5위	2위	6위	5위	5위	6위	
	점유율	30.8%	10.4%	5.0%	30.4%	4.9%	5.0%	10.10%	5.30%	
2000	순 위	1위	4위	5위	1위	6위	3위	4위	6위	
	점유율	38.0%	7.7%	5.40%	45.8%	5.1%	5.2%	10.2%	5.0%	
2001	순 위	1위	4위	5위	2위	6위	4위	5위	6위	
	점유율	41.5%	5.7%	5.20%	31.9%	5.2%	5.2%	9.20%	4.40%	
2002	순 위	1위	4위	6위	2위	5위	4위	5위	-	
	점유율	43.8%	7.0%	5.40%	31.9%	5.0%	5.2%	8.50%	-	
	비 고		2위	1위	1위	1위	-	1위	-	-
			미국 18.8%	미국 50.6%	미국 20.9%	일본 42.3%	-	미국 25.7%	-	-
자 료		Dataquest		OICA	Lloyd's	한국철강 협회	TECNON	한국화섬 협회	UN 무역 통계연보	

고수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이 여전히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도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신산업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자 절대적인 의미에서 과거 주도산업의 퇴출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이 계속 한국경제의 성장에 상당히 기여하여야 하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4. 한국 기업의 위상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세계 기업과의 상대평가로 어느 정도의 비교가 가능하다.

포춘지가 선정한 2003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 13개의 한국기업이 포함되어 세계 7위로 선정되어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각각 192개와 88개로 1위와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중국도 11개 기업이 포함되어 한국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추이를 점검하기 위해 세계 500대 기업의 증감추세를 보면, 한국은 외환 위기 이후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 1997년 수준인 13개

로 회복되었다. 미국이 이 기간 중 30개사가 증가한 반면 일본은 38개사가 감소하여 일본 경제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1997년 글로벌 500대 기업 수가 3개사에 불과하였다가 2003년에 11개로 증가하여 중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 기업의 약진은 바로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UNCTAD가 자산 기준으로 선정한 2001년 중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비금융기업)에는 한국의 경우 LG 전자 1개사만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미국은 28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기업의 역사와 세계화가 늦게 시작되어 아직 세계적인 기업과는 상당한 정도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기업으로는 일본이 8개사, 싱

가포르와 홍콩이 각각 1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 기업의 위상이 우리 경제의 종합적인 위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선진국 기업에 비해서는 부족하므로 세계적인 기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5. 국제기관의 평가

스위스에 소재하는 IMD는 2003년 중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인구 2,000만명 이상 조사대상 30개국 중에서 15위로 평가하였다. 이는 2002년보다 5단계 하락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4위, 대만 6위, 태국 10위, 중국 12위보다 낮은 순위이다. IMD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순위를 높여오다가 낮게 평가한 것이다.

또 다른 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은 「2003-2004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경쟁력

〈표 4〉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수 추이

순위	국가명	2003	2002	2001	2000	1997
1	미 국	192	197	185	179	162
2	일 본	88	88	104	107	126
5	영 국	34	33	33	38	42
7	한 국	13	12	11	12	13
8	중 국	11	11	12	10	3
10	네덜란드	11	9	9	8	9
17	핀란드	3	2	2	2	1

자료 : Fortune, "Global 500", 2003, 2002, 2001, 2000, 1997,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 500대 기업의 변화추이」, 2003. 9에서 재인용.

(Growth Competitiveness)을 세계 102개 국가 중 18위로 평가, 전년보다 7단계 높아졌다고 발표하였다. 성장경쟁력 지수의 경우, 1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가 전년과 변동없이 핀란드, 미국, 스웨덴, 덴마크의 순서로 나타났다. 순위 상위권 국가 중 전년에 비하여 순위 상승폭이 큰 국가는 일본(16위→11위)과 우리나라(25위→18등)이다.

국제적인 평가기관이 한국의 경쟁력을 두고 각각 엇갈린 평가를 내린 것은 각자의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국제기관의 평가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평가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인 신인도는 국제시장에서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제기관의 평가에서 중요한 점은 세부 항목별로 한국의 우열을 평가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 세부 분야별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세부 평가항목별로 보면 교육투자, 고학력화, 연구개발비, 투자, 정부재정수지, 실업률, 실질 경제성장률, 중앙정부의 부채비중, 외환보유고, 정부보조금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와 관련하여서

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나 인터넷 이용자 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지적되었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대체로 양적인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것이 많았다.

열악한 항목으로는 기업경영 부문의 제 지표, 교육투자의 효율성, 여성인력 활용, 산·학·연 협동, 기술개발 성과, 노사관계 등이 지적되었다. 기업환경 등에서도 부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의 투자 부진과 관련하여 규제개혁 등으로 개선할 점이 많은 분야이다. 특히, IMD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성, 국회의 여성진출 정도, 노사관계 및 문화의 개방성 등 항목에서 조사 대상 30개 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항목은 주로 질적인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양 기관에서의 평가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설문조사와 관련한 항목에서는 모두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유연성,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부패 정도, 기업의 투명성 등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매우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인 지표 이상으로 나쁘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설문에 답하는 기업인의

〈표 5〉 주요국의 IMD<sup>1)</sup> 및 WEF 국가경쟁력 순위

	IMD 국가경쟁력	WEF 성장경쟁력	WEF 기업경쟁력
한 국	35(15)	18	23
미 국	1(1)	2	2
일 본	29(11)	11	13
영 국	22(7)	15	6
네덜란드	10(8)	12	9
핀란드	1(1)	1	1
싱가포르	3(2)	6	8
대 만	20(6)	5	13
중 국	32(12)	44	46

자료 : IMD(200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WEF(2003),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3-2004*.

주 : 1) 조사대상 총 59국의 순위이며,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대만, 중국 등의 ( )안은 인구 2,000만명 이상 그룹, 네덜란드, 핀란드, 싱가포르 등의 ( )안은 인구 2,000만명 이하 그룹 중의 순위임.

인식이 매우 저하된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최근의 기업 환경 악화와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저하도 그 배경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기술개발, 기업 활동 등의 제반 활동 중 산·학·연 협동분야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다. 투입주도형 경제성장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효율성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 관련 제도 및 시장체제의 정비 등 제반 제도 및 조직의 개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 및 조직의 정비 못지않게 산·학·연 협동 등을 통한 네트워크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국제평가기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6. 종합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수치적인 순위를 보면, 국제적인 기관의 평가대로 세계 20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역 성취, 산업 및 기업의 세계적인 위치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력 순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중국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쟁력이 외환위기 이후 많은 부문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개선하여야 할 부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크게 진전이 없다는 사실은 크게 우려할 만하다.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성장에 따

른 위협,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투입주도형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담보상태에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세부적으로는, 교육투자, 고학력화, 연구개발비, 투자, 정부재정수지 등 경쟁력의 양적인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질적인 조건에서 크게 미흡한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투자의 효율성, 여성인력 활용,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연구개발인력의 부족,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도, 산·학·연 협동의 부족, 부패, 기업경영의 투명성, 기업환경 및 규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질적인 요소는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평가되는 양적인 조건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사관계 등에 따른 투자 환경 악화로 우리 경제의 투자가 회복되고 있지 못한 것이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흡한 점은 교육이나 노동 등과 같이 인적자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나 경영의 투명성 및 규제 등과 같이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확충과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한 인력 경쟁력의 확충과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스스로도 내부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에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최근의 반기업 정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산·학·연 협동을 기술개발, 인력자원 확충 등 모든 분야에서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주관적인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브랜드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경쟁력의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계획 및 평가라는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